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사원들.

무슨 일인가 열중한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이 있다.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거대한 기계들과 씨름하는 기능인들의 모습은, 보는이에게 순수한 아름다움과 함께 믿음직한 신뢰감을 전해준다. 그러나 바쁘고 힘든 일과 틈틈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여유를 찾을 줄도 아는 그들의 현명한 자세는 더욱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서함양과 경영정보 제공

3500여명의 근로자들이 땀흘리고 있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사장 李景勳. 인천시 동구 만석동6). 정문을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향하면 널찍한 잔디밭이 펼쳐 있고, 그 오른쪽 흰색의 연수원건물 입구에 '독서실'이란 푼말이 걸려 있다. 짧은 휴식시간에 틈을 내어 이곳을 찾는 사원들의 밝은 모습에서, 차디찬 금속더미와는 다른 따뜻함이 느껴진다.

중공업식구들의 사랑방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독서실은, 전자(인천·광주공장), 중공업(안양·창원공장), (주)대우(부산공장) 등 그룹 내의 여타 독서실들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왔다. 1980년 9월 25일, 기계와 그 기계들이 내는 소음에 문혀 하루를 지내는 현장직원들의 정서함양과 경영정보를 위해 그 첫문을 열었다.

"독서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 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격투에 시달리는 직장인, 근로자들은 책을 읽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기 쉽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직장 내 도서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실이 사원들의 휴게실 겸 지식의 場으로 자리잡게 되어 무척 흐뭇합니다."

고정남 연수원부장은 중공업 독서실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 독서실 운영을 맡고 있는

李京伊씨(25) 역시 대우가족의 높은 독서열을 자랑한다.

"사무직 사원과 기능직 사원을 달리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책과 인연이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3천5백여 현장직원들의
휴식공간이자 지식의 場인
대우중공업 독서실.
7천여권의 장서와
45종의 정기간행물을 갖추고
다양한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책벌레들도 많아요. 저 역시 이곳에서 일하면서, 책하고 뿐만 아니라 책 벌레들하고 친하게 되었지요."

그 자신은 극장문지기격에 불과하지만, 사원들의 높은 호응에 힘 입어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단다.

'즐기는 독서, 생각하는 독서'

연수원 건물1층에 자리한 독서실은 총 62.5평으로, 60개의 좌석을 갖춘 열람실과 70여석의 VTR실로 이루어져 있다. 80년 당시 천여권으로 출발했던 장서가 현재 7천여권에 이르러, 이제는 아쉬운대로 사원들의 지식욕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전문기술서적은 연구소 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독서실에는 철학·종교·사회과학·역사·문학 등의 일반교양서와 참고도서가 주종으로 이루고 있다. 한편 아동도서도 100여권 비치되어 있어, 회사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끈이 되기도 한다. 그밖에 39종의 월간지와 6종의 일간지가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사원들이 가꾸어낸 문화공간

대우중공업의 독서실

점심시간(12시~12시50분)과 오후휴식시간(2시50분~3시50분) 그리고 저녁시간(4시50분~5시20분) 등 하루 세차례 개방되는 독서실을 찾는 인원은 평균 150명 정도로, 매일 100여권이 대출된다. 가장 붐비는 시간은 역시 점심시간. 12시 정각 독서실 문이 열리자마자, 읽은 책을 반납하고 새로이 대출하려는 사원, 정기간행물을 읽기 위한 사원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보고싶은 책을 보면서 부담없이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에 필요한 자료,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책들을 마음껏 읽으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랄까요."

박용권씨(검사과)는 요즈음 취미삼아 시작한 꽃기르기를 위해 「花卉」라는 책을 대출했다면 흐뭇해한다. 그런가하면 한정해씨(기술협력부) 역시, 독서실 덕분에 오히려 학창시절에 읽지 못했던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독서실 입구에 붙어 있는 '즐기는 독서, 생각하는 독서, 조사하는 독서'란 포스터의 문구처럼, 이제 이곳은 사원들의 휴식공간이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서실측의 분석에 따르면, 사원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짧은 시간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 에세이 등을 비롯한 가벼운 교양서적류.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과학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책을 찾는 이들도 많아, 다양한 신간구입에 늘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신간은 독서실측의 자료조사와 신청도서를 종합하여 예산한도에서 구입하게 된다. 연간 평균예산은 350여만원, 매달 70여권씩 들어온다.

"정해진 운영예산으로는 사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기가 어렵지요. 원하는 책을 모두 갖추어 놓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李京伊씨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며, 그러나 회사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서실을 내 방처럼 아끼는 여러 사원들의 협조가 있어 늘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인다.

연간 도서구입비 350여 만원

대우중공업의 독서실은 회사측에서 마련해 놓은 시설이긴 하지만 전 사원들이 함께 만들

어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이곳에 대한 관심과 기대, 이에 따르는 요구가 많다는 얘기이다.

독서실 단골손님의 한 사람인 박화수씨(전자기술부)는 자신이 즐기는 경제, 역사서적들이 많아졌으면 하고 바란다. 전집류와 업무상 필요한 연감류의 구입을 원하는 사원, 도서관리의 과학적 운영방안을 내놓는 사원, 신간구입이 늘다고 불만을 말하는 사원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자신이 읽고난 책을 기증하거나, 독서실에 설치된 음향시설을 위해 레코드를 기증하는 사원들도 많다고.

이에 답하기 위한 독서실측의 노력도 상당하다. 그 일환으로 「책사랑」이란 정보지를 매월 1회 발행하고 있다. 16절지 1장으로 된 이 책정보지에는 이달의 베스트셀러 목록, 신간 소개와 도서소식 등이 짙막하게 실려 있다.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고 말하는 李京伊씨는, 「책사랑」을 더욱 충실히 꾸며 사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앞으로는 이곳을 찾는 사원들의 독서성향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가벼운 읽을 거리에 치우치던 것을, 깊이 있는 독서로 방향을 유도하고 싶어요. 또한 교양과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영한대역서적들을 구비해 사원들의 어학공부에도 도움을 주고 싶군요. 아직은 검토단계이지만 독서대학, 작가초빙 강연회, 독서모임도 마련했으면 하고요. 점심시간마다 방영하고 있는 VTR프로그램도 재미있고 유익한 것들로 꾸며볼 계획이에요."

이곳을 사내 문화공간으로 키우려는 독서실측의 계획은 무척 크고 다양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무거운 짐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앞에서 끄는 사람과 뒤에서 미는 사람이 서로 호흡을 맞추어 협력해야만 한다. 지난 여름과 가을, 전국을 휩쓸었던 노사분규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당연한 진리를 절실히 느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근로의 현장에서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원들의 정서에 기울이는 회사측의 관심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대우가족들의 열의와 자신감 넘친 모습에서 밝은 가능성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오애리 기자